

전북대, 학생 창의적 모험활동 지원

아이디어 낸 14팀 활동지원 장학금 지원... 겨울방학중 다양한 경험 통해 팀별 성과 발표

“운동주 시인이 중국 조선족 애국 시인이란 주장하는 중국의 왜곡을 모험활동을 통해 널리 알리고 싶었어요.”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모험 인재 양성을 위해 실시한 ‘학생 자기설계 국내·외 모험활동 공모전’에서 시를 쓰는 사람들(물리학과 한상아·김상혁, 신문방송학과 김주원, 국어국문학과 문다정)이 운동주 시인의 발자취를 사진에 담아 중국의 역사 왜곡을 알리는 활동으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공모전은 전북대가 겨울방학 중 학생들의 모험 프로젝트를 독려하기 위해 평소 품고 있었던 다양한 모험활동 아이디어와 계획을 받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한 것.

전북대는 지난 1월 저마다 아이디어를 낸 14팀을 선정해 팀당 최대 2백만원의 활동지원 장학금을 주고 학생들이 스스로 낸 아이디어로 방학 중 직접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최근 그 성과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 분과 동아리원으로 구성된 대상 수상팀 시를 쓰는 사람들은 민족시인 운동주에 대해 중국이 생가에 ‘조선족 애국시인’이라는 표지석을 세우는 등의 왜곡이 있는 것을 접하고 운동주 시인 관련 국내의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중국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카메라에 담아냈다.



전북대는 지난 1월 저마다 아이디어를 낸 14팀을 선정해 팀당 최대 2백만원의 활동지원 장학금을 주고 학생들이 스스로 낸 아이디어로 방학 중 직접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최근 그 성과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광양의 운동주 보존가족과 서울 연세대 언더우드 동상, 중국 연변의 명동촌 생가 및 대성중학 옛터 등을 탐방했고 한국에 돌아와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사진전을 직접 열어 중국의 왜곡이 사실이 아님을 주장하는 활동을 펼쳤다.

한상아 학생은 “이번 활동을 통해 뻔뻔한 중국의 태도와 미온적인 정부의 태도에 분노도 느꼈지만 백지 상태에서 시작된 기획을 실행에 옮겼다는 것에 자신감과 성취감도 얻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밖에도 일본의 선진 사례 탐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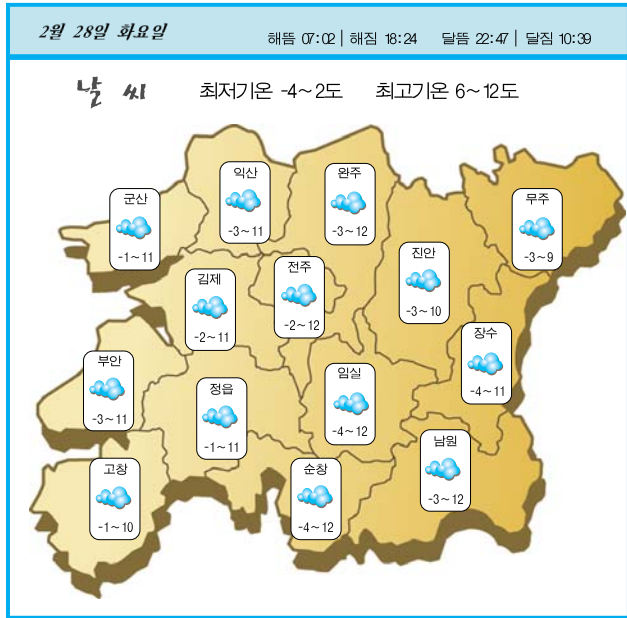
을 통해 유기견 문제 개선 방안을 모색한 ‘인어줄개’ 팀(신문방송학과 이나라, 회계학과 방경라,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성민수), 1960~1970년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발자취를 되짚어 본 후아유 팀(목재응용과학과 이원석, 간호학과 황지훈, 전자공학부 나태주) 등이 각각 최우수상을 받았다.

또 인도를 직접 찾아 여성인권과 국제개발협력의 중요성을 체득한 ‘신서유기’ 팀(지마카타국제학부 강미정, 나시원, 김수진)과 일본의 장

업 시장과 성공 사례 등을 몸소 체험한 ‘우문현담’ 팀(경영학과 이승주, 이현수, 정인용)은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남호 총장은 “현대사회에는 스펙보다는 스토리를 갖춘 인재를 요구하기 때문에 다양한 것을 경험하고 체득하는 모험 인재 양성을 위해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들이 이상에 그치지 않고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해은기자



도교육청, 자율선택과제 독서글쓰기교육 등 9개 사업 확정 23억원 지원

전북도교육청이 교원 업무 경감 일환으로 종래의 공모 대신 학교 선택형식의 자율선택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9개 사업을 확정하고 총 331개 초·중·고교에 23억9,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7일 전라북도교육청은 올해 학교 자율선택과제로 △학습공동체로 성장하는 참학력 학교 △특수교육 △마을예술학교 △수학·과학 교과체험활동 △사치와 수업 중심의 인성교육 △학교 자유 주제 등 9개 사업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총 331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교에 규모에 따라 1교당 200만~1,400만원까지 총 23억9,500만 원을 지원해 다양한 교육활동이 주

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이 올해 선정할 9개 학교 자율선택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습공동체로 성장하는 참학력 학교는 교사 독서토론 등 학습공동체 운영을 통해 전문성을 신장하는 한편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길러주는 프로그램이다. 또 독서글쓰기교육은 저자외의 만남, 독서캠프, 문학기행 등을 통해 학생들의 종합적 사고능력을 키워주는 사업이다. 마을예술학교는 음악·미술·연극 영화 학생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며 숲공학교는 전북숲해설가협회 등과 함께 수목원을 찾아 숲과 연계한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정해은기자

전주 한지의 우수성 재발견 · 페이퍼 아트 발전 가능성 확인

‘전주 핸드메이드시티 워크 세계 여러 나라 종이제품 페이퍼 아트 전시 눈길

전 세계 종이예술가들이 수제작 문화의 산업화, 대중화, 세계화를 위해 마련된 ‘전주 핸드메이드시티 워크’와 전주한지의 가능성에 대해 극찬했다. 지난 20일부터 28일까지 전주한옥마을 공예품전시관 등 전주시 일원에서 진행중인 ‘전주 핸드메이드시티 워크’에서는 전 세계의 페이퍼 아티스트들 130여명의 네트워크 형성을 기반으로 종이를 이용한 놀라운 핸드메이드의 세계를 보여주는 ‘월드 페이퍼 프로젝트’ 전시가 진행되고 있다. 전시에 참가한 페이퍼 아티스트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전주 한지의 우수성을 재발견하고, 한지를 활용해 페이퍼 아트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특히 이들은 이번 행사의 의미에 대해 공감하며 저작권 사용 문제를 기꺼이 허락했으며, 일부 작가들은 자신의 SNS 등을 통해 전주 핸드메이드시티 워크 행사를 적극 홍보하기도 했다. 이로써 전주는 행사 이후에도 전 세계 페이퍼 아티스트들의 중심 도시 전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한 또 하나의 성과를 갖게 됐다.

전주공예품전시관과 한지산업지원센터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월드 페이퍼 프로젝트’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의 종이 제품과 페이퍼아트를 선보이고, 종이로 만드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체험을 함께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주요 프로그램은 스페이퍼 아트 △페이퍼 프로젝트 △종이 모형 △종이 조형물 △만들기 체험의 5가지로 구성됐으며, 이 중 월드 페이퍼 프로젝트의 ‘페이퍼 아트’ 어렵지 않아요 전시는 관람객들에게 페이퍼 아트의 무한한 상상력의 예술세계를 보여주는 전

시로 꾸며져 가족단위 관람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단순한 관람을 넘어선 다양한 체험 이벤트는 종이의 무한한 세계를 관람객들이 직접 경험하고 간직할 수 있는 색다른 추억을 선사하고 있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과 관계자는 “다양한 핸드메이드 소재 중에서도 가장 우리에게 친숙한 것은 바로 종이”라며 “이번 전주 핸드메이드 시티 워크 2017가 종이를 이용한 놀라운 핸드메이드의 세계를 보여준 좋은 기회가 됐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재기자

전북교육청, 2017년도 디딤도울 결연식 개최

전북도교육청은 27일 청내 강당에서 경험이 풍부한 선배 공무원과 도움이 필요한 신규 공무원 및 초임 행정실장과 연계하는 ‘디딤도울’ 결연식을 개최했다. 디딤도울은 새로운 직무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신규 공무원과 초임 행정실장의 직무 역량을 키우고 조직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경험이 풍부한 선배공무원들이 도움이 필요한 후배 공무원을 지도하고 직장생활의 방향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3월부터 9개월간 운영된다. ‘디딤도울’은 디디미와 도우리의 합성어로 도우리는 선배 공무원

을 말하며 디디미는 후배 공무원의 의미이다. 디디미 대상은 일반직 공무원 중 새로 임용된 공무원 또는 처음 행정실장이 된 공무원이며 도우리는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선배 공무원이 말한다. 올해 디디미는 신규임용자 115명, 초임 행정실장 28명이며, 도우리는 84명으로 총 227명이 41개 조로 편성되어 활동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를 통해 소통하고 협력하는 조직 문화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해은기자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두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 등교시간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달라진 모습이에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아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우곡초 교사)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학교를 지켜주세요
행복한 교육 공동체
‘아침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한편 가정의 ‘보리밭’ 역할을 재검토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정책입니다.